

내부 역량강화로 시정 혁신 주도

군산시, 새내기 공무원의 창의성 · 간부공무원의 해안 융합 도모

‘새로움, 역동’을 담은 혁신 시정을 위한 군산시 시정혁신모임 ‘정책반올림’, 생각을 키우는 아침창 ‘군산 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군산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합한 정책개발과 최근 5년 미만 임용 신규 직원이 늘고 있는 행정조직의 유연성을 위해 2022년 정책반올림을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정책반올림은 임용 5년 미만 8~9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주니어보드’로 참가한 공무원들은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개

선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4일 청년플래서 4기 발대식을 가진 정책반올림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 유연한 정책개발을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문화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4명의 반올림 4기 멤버들은 정책개발을 위한 이론, 탐구과 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월 2회 이상 지속적인 자문과 코칭을 통해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여 시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 반올림 4기의 목표이다.

이외에도 △소통 잘되는 조직문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팀원 워크숍 △조직 내 협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기적 아이디어 회의 △팀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협업 강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할 계획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정책반올림을 통해 신선한 정책 탄생을 꿈꾸고 있다면, 군산시 간부 공무원들은 도·시의원과 함께하는 정책 리더들의 아침 공부 프로그램인 ‘생각을 키우는 아침 창, 군산 혁신아카데미’로 혁신 행정을 도모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린다.

‘학교서 배우는 농업·농촌의 가치’

익산시 스쿨팜, 총사업비 9600만원 투입... 초교 12곳 텃밭 운영

익산시가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린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입해 이리고현초등학교, 이리동북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 스쿨팜(학교 텃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으로,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의 식재부터 재배, 수확, 음식 조리까지의 체험을 통해 농업이 음식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스쿨팜 지원사업은 익산시와 익산교 육지원청, 초등학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익산시는 지난년부터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고 익산 스쿨팜 시니어 사업단과 함께 상추, 감자, 토마토, 옥수수 등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텃밭 상자를 이용해 비 모래기와 점토방식의 비 수확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쿨팜은 성취감을 부여하고 협동심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작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 탐구력, 언어 표현력, 사고 이해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와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초등학생들이 스쿨팜 사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며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느끼고 힐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격무 업무 종사 직원들 우대 강화한다

격무부서→우대부서 명칭 변경 12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군산시가 연공 서열 중심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격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격무 종사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2년 단위로 직원이 기피하는 부서를 우대(격무)부서로 지정해 우대 부서에 근무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면 가 점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대부서 선정 절차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우대부서 지정을

신청하면 전 직원 투표(50점), 부서장 투표(20점), 공무원노동조합 추천(20점), 부서장 추천(10점)을 합산해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개 부서가 추가됐다. 또한 처음 사용했던 ‘격무부서’가 단어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더 기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우대부서’로 명칭을 순화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지정된 우대부서는 총 12개로 경로장애인파(장애인복지계·장애인시설계·장모시설계), 아동정책과(보육지원계·아동보호계), 자원순환과(청소행정계), 안전총괄과(자연재

난계), 건설과(도로관리계), 교통행정과(대중교통계·택시화물계·교통지도계), 동물정책과(동물정책계)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우대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성과상여급 A등급 이상 지급, 2년 이상 근무자 희망전보 우선 반영 등 인사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0.5점을 부여하던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자부터 우대부서 근무 6개월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0.5점씩 가산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윤신애 군산시의원, 도서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최근 군산시 도서관 정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도서관을 전격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주시 소재 도서관들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지역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했다.

윤신애 의원은 첫 번째 일정으로 전주 북성도서관을 방문, 혁신적인 공간의 이노베이션이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비슷한



규모의 군산 도서관 현황과 비교했다. 특히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동선배치를 살펴보고 트윈 세대를 위한 우주로 1216'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금암도서관을 방문, 1980년대에 건축된 이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주변 구도심과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시 12개 특성화도서관 중 다가여행자도서관과 연화정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주민뿐 아니라 여행자들에게도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각각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익산시가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본격 운영을 앞두고 위원을 모집한다.

익산시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익산시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어 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센터 운영과 지역 현안의 자문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주민총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모집 지역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새롭게 1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준비 중인 함평읍,

용안면, 중앙동 신동, 삼성동 등 5개 읍면동이다.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읍면동별 위원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6월 중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다양한 자치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익산=이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청년 지원정책 홍보 위해 대학 현장 찾아가

익산시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청년정책을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현장을 찾았다.

시는 원광대학교 대동제(WONSTIVAL)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정책 및 청년시청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청년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익산시 청년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시청에서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과 문화 프로그램, 인구정책 등을 소개한다.

또한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익산시 청년창업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 마카쥬(여러용 가죽 케이스 페인팅), 유리공예를 활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한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개모집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정기 공석중인 대표이사를 내달 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공개모집과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확보를 위해 에너지 및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대학교수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 22일 1차 회의를 거쳐 공모(안)과 심사기준(안)을 확정했다.

응모자격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 능력을 갖춘 자 등이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추천되며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